



# 가와사키 시 川崎市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뉴스레터

뉴스레터 No.38

편집 · 발행 : 시민 · 어린이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2010년 3월 31일 발행

<http://www.city.kawasaki.jp/25/25zinken/home/gaikoku/index.htm>

## 외국인 시민의 목소리를 4 개의 제언으로 제 7기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최종회의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제 7기 외국인 시민회의의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 살고 있는 3만 2000 명이 넘는 외국인 시민을 대표로, 교육문화, 사회생활의 2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하여, 제언을 만들었습니다. ①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지원, ②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의 충실, ③외국인과 의료, ④다양화하는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라는 4 개의 테마에 대해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제언의 내용은 2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자회의를 지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외국인에게도 일본인에게도 살기 좋은 가와사키를 목표로 활동하겠습니다.

## 오픈회의 개최 많은 참가자와 논의



2009년 11월 29일, 타카즈시민관에서 오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일엔 날씨가 좋아 가와사키 시민과 타도시의 시민, 시의회 의원, NPO 관계자, 각지의 자치체 직원, 연구가, 학생, 대표자 경험자 등, 약 180 명이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참가해주셨습니다.

오픈회의의 목적은 우리 대표자들과 시민들 사이의 교류와 대화를 깊이 하여, 시정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보다 살기 좋은, 가와사키시의 다문화 공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픈회의에서는 전체회의와 3 개의 분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학습지원’, ‘다문화이해’, ‘사회생활’ 3 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활발하고 뜨거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후에는 교류파티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 사귀기와 서로의 관계를 깊이 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회의와는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웃는 얼굴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아슬리)

\* 당일의 참가자 의견은 3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제 7 기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제언

## 【1】 외국과 관련이 있는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지원을 충실화한다.

- 1 외국과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 학교의 수업과 고등학교 입시에 적응하도록,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한다.
- 2 고등학교 입시에 있어서, 시립 고등학교에서 외국과 관련이 있는 아이들을 배려한 특별한 입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가나가와현에 현 거주 외국인등 특별모집을 가와사키 시내의 현립 고등학교에서의 실시, 모집정원의 확대등을 권유한다.



## 【2】 초등·중학교에 있어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충실

- 1 초등·중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에 있어서, 특히 그 중심인 민족문화 강사와 만남사업의 향후 참고가 되는 실천집을 만들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한다.
- 2 다문화 이해 교육은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과 자기 긍정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국과 관련이 있는 아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다문화 이해 교육에 도입한다.

## 【3】 외국인 시민이 안심하고 지역에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 1 국제교류협회와 시민활동단체 등 관계기관이 제휴하여, 의료에 대한 상담과 병원에 도우미 파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2 외국어로 대응할 수 있는 병원과, 다언어 의료 문진표 등의 의료정보를 정리한 링크집을 시의 홈페이지상에 만든다.
- 3 시내의 의료기관에서 다언어 의료 문진표의 이용과 원내표시의 다언어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의료 통역자나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이 진찰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정비를 할 것을 권유한다.



## 【4】 외국인 시민의 다양화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여, 문제해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1 국제교류협회나 시민활동단체 등의 직원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외국인 시민의 복잡하고 다양화한 문제를 제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인재를 구청이나 외국인 상담창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언의 이유나 배경은,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연차보고서 <2009년도>’ 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보고서는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의 회의장에서 배포하거나, 구청, 시민관, 도서관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식을 통한 다문화 교류 ~ 다문화 페스타 미조노쿠치 ~



다문화 페스타 미조노쿠치가 10월 24일, 겨울이 찾아왔음을 느끼게 하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 타카즈시 민관에서 행해졌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걱정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각국의 전통요리를 즐기면서, 여러 나라의 춤과 노래를 감상하거나 미국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에서는 요리 포장마차를 설치하였고, 물만두, 에비센베이, 루마니아의 수프, 필리핀의 디저트를 방문객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와 오픈회의의 광고지, 시민축제의 광고지 등을 배포하고 대표자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회의를 이해시켜, 다문화 공생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우코우)



##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 제 32 회 가와사키 시민축제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교류와 다문화 공생 사회를 목표로,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가와사키 시민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세계의 설날·결혼식'의 사진 등을 전시·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례(恒例)의 세계에 관한 퀴즈는 인기발군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제기차기의 중국놀이와, 태국과 필리핀의 야자껍질로 만든 신발 등을 소개했습니다. 각각의 놀이방법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놀았던 것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대표자들도 출연한 세계의 춤과 노래를 소개하는 다문화 스테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박수로 응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 주시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던 것은 '다문화 공생 사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에다 신야)

# 제 7기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를 되돌아 보며

위원장 조용제

제 6기부터 햇수로 4년 동안 이 회의를 맡아왔습니다. 2기째라는 것과 얼마 되지 않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요약하는 역할로서 위원장에 추천되었습니다.

제 7기에서는 젊은이들이 추가되어, 연령층의 균형이 잡힌 멤버였습니다. 또한 일본어가 상당히 능숙한 멤버들이 많아 원활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외국인 시민이라도 국제결혼을 한 분, 부부 모두 외국국적인 분, 유학생, 일본태생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로, 어느 항목을 우선적으로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가와사키시의 외국인 인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와사키시의 외국인 시민 문제는 가장 인구가 많았던 제일 한국·조선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인구가 3만 명을 넘는 가운데, 중국국적의 외국인 시민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또한 외국인 시민의 생활환경이나 가족구성도 다양화되고, 정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 7기의 제언이 태어났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교진학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비롯해, 의료환경의 정비, 생활에 밀착된 문제의 상담·해결이라는 외국인 시민에 대한 'Quality of life' (생활의 질)를 펼치는 것이 제언의 기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시민에게 있어서의 'Quality of life'가 향상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인 시민에게 있어서도 이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는 일본인 시민에게 있어서도, 외국인 시민에게 있어서도, 서로를 알 수 있는 '사킵'의 장소는 아닐까 하고 나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관자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외국인 시민들이 더욱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8기 대표자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다양화하는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다리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노력해 주십시오.

**<문의>** 가와사키시 시민·어린이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川崎市市民・こども局人権・男女共同参画室)  
우 210-857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야모토초 1 (〒210-8577 川崎市川崎区宮本町 1)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와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감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